

지역 소식통

부안군, 사회적 농업 발굴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전북도에서 공모한 지역 맞춤형 농업 및 정책진단 과제에 사회적 농업 현황 진단 및 사회적 농업 발굴이라는 주제가 선정돼 사업추진기관인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 및 과제수행기관인 완주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된다.

과제수행기관인 완주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사회적 농업 및 경제 등에서 완주군의 모델 개발을 위한 사회적 농업 및 경제부분을 전국에서 으뜸가는 일번지로 만들고 많은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벤치마킹과 농림축산식품부, 사회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평가에서 좋은 완주군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온 조직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농업 현황을 진단하고 부안이 가진 자원 등을 활용해 사회적 농업을 발굴하고 사회적 경제부분까지도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부안군, 설치 지원키로

부안군은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일반가정 100대와 저소득층 16대로 총 116대이며,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일반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이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일반가정은 20만원, 저소득층 가정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한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선정된다.

저녹스 보일러의 경우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 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보일러 판매점에 문의해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클라이밍 특화”

고창군, 문체부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공모 선정

패러글라이딩·해변승마 연계 관광상품 개발 나서

“아찔한 바위 위에서 맞는 선운산 바람의 상쾌함이 매력적이지요” 고창군이 명품 레저스포츠 육성과 지역관광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0년 지역특화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높을고창 할매바위 클라이밍 체험 및 투어’가 최종 선정됐다.

고창군은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자연 안벽 클라이밍을 주력 아이템으로 삼고, 방장산 패러글라이딩, 석정 MTB(산악자전거)파크, 구시포 명사십리해변에서 즐기는 짜릿한 승마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높이 60m, 폭 50m에 달하는 아산면 계산리 할매바위는 수직벽과 오버행(수직 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바위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도 큼직한 돌

드(돌맹이 등 잡을 수 있는 부분)와 잘 발달된 포켓홀드(흔이 있는 부분) 등이 있어 클라이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다.

등반 거리도 짧은 편으로 쉽게 오르내릴 수 있으며 난이도 역시 초·중급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다양해 자기 수준에 맞는 투트를 등반할 수 있다.

군은 상반기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캠퍼 등을 진행해 전국 레저인들을 고창으로 끌어모을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관내 종목별 협회, 스포츠마케팅 민간추진위원회 등과도 유기적인 연대로 교통, 먹거리, 숙박 등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레저스포츠 참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며 “체험 중심의 관광 트렌드에 발



고창군이 명품 레저스포츠 육성과 지역관광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맞춰 명품 레저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가격리 이탈자, 꼼짝마”

정읍시, 실시간 추적에 1주일 2회 이상 불시점검까지

정읍시는 코로나 19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철저한 자가격리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휴업 유도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하고, 손 소독제와 살균 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GIS를 활용한 24시간 자가격리자 이동 동선 확인, 경찰서와 연계한 격리장소 순찰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의 유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탈방지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기속사에서 시설격리를 추진중에 있다.

최근 타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이탈

사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는 1주일에 2회 이상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이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6일과 8일 실시한 불시 현장점검에서는 지역 내 모든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며 이탈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격리자의 어려움 등 의견을 수렴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는 자가격리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불시점검뿐만 아니라 보다 편안한 자가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코로나19 집단감염 막아라”

정읍경찰서와 합동점검반 구성 학원·교습소 집중... 19일까지

정읍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정읍경찰서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학원·교습소에 대해 시 자체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과 집단감염

위험요소 존재 등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 정읍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결정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 내 243개 학원·교습소 중 정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강사와 학생의 마스크 착용여부,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 작성, 발열체크, 1일 2회 이상 소독·환기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강도 높은 사

회적 거리두기에 학원과 교습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이달 추가로 손소독제와 환경소독제 972개를 학원과 교습소에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에 총력을 펼치며 학생과 학부모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학원과 교습소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정읍 정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민원처리 착오와 과실을 줄이고 행정적으 민원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를 운영한다.

정읍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

정읍시는 민원처리 착오와 과실을 줄이고 행정착오 민원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의 사무 착오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령을 통해 1999년 제정 이후 20여 년 동안 인상이 없었던 보상금 지급금액을 인상했다.

정읍 시내 거주자의 경우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시외 거주자의 경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다.

보상제의 대상은 ▲공무원의 업무과

실로 공부상 잘못 등재되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방문한 경우 ▲민원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는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민원처리 부서에서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개정으로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향상시켜 행정적으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 회복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읍, 성산마을 추억의 벽화길 선배

고창읍 고창읍이 지난달부터 성산마을 주택가 담장에 고창의 근현대 모습을 그려넣은 ‘성산길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성산마을은 고창읍에서 최초로 조성된 주택단지로서 현재까지 당시 골목의 좁은 형태와 골격이 유지돼 벽화사업으로 완성맞춤형 지역으로 꼽힌다.

성산길 벽화사업은 성산6길 주변 골목 담장에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자치기, 공기놀이, 우물가 빨래터, 옛장수 등 6~70년대 근현대시절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어 노후

된 주택가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의 명물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9일 오후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성산마을 주민이 함께 벽화 그리기에 동참했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벽화골목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외곽지역에 아파트, 뉴타운개발 등이 일어나면서 기존 주거지역에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벽화사업처럼 소소하지만 친근한 방법들을



고창읍 고창읍이 지난달부터 ‘성산길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적용해 낙후지역을 새롭게 바꿔 나가고 도시재생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